

## 한국 대학생의 상담, 심리치료, 정신치료에 대한 태도\*

유 성 경<sup>†</sup>

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한국 남녀 대학생 572명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적 도움(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을 받는 것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다. 전문적인 심리적 도움은 상담, 심리치료, 정신치료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전문적 도움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Fisher와 Turner(1970)가 개발한 '전문적인 심리적 도움 추구에 대한 태도 질문지(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Scale; ATPPHS)'를 사용하였다. ATPPHS는 도움 필요의 인정, 낙인 수용, 개방성, 전문가에 대한 신뢰의 4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한국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서구인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4요인 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몇 개의 개별문항들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의 3가지 형태와 남녀에 따라 도움 추구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다변량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정신치료에 대해 상담 및 심리치료 보다 낙인수용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여자 대학생들이 남자 대학생들에 비해 정신치료, 심리치료, 상담 모두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주요어 : 전문적 도움 추구, 상담, 심리치료, 정신치료

---

\* 본 논문은 2004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International Congress of Psychology의 Invited Symposium에서 발표되었음

† 교신저자 : 유 성 경,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전화 : 02-3277-3911, E-mail : skyoo@ewha.ac.kr

상담 및 심리치료가 인간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경험적으로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Wampold, 1999),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이 상담 및 심리치료와 같은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당면한 문제가 심각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일컬어 '서비스 갭(service gap)'이라고 한다(Cramer, 1999). 우울증 혹은 불안과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있지 않다(Roness, Mykletun, & Dahl, 2005)는 연구결과들은 상담 및 심리치료 영역의 사회적 책무성을 재고하게 한다. 즉,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지만 실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이해와 적절한 형태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정도의 커다란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요인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인식하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실제로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게 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개입하게 된다.

우선 환경적, 맥락적 요인들이 개인의 도움 추구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환경적 요인이 전문적 치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로, 독일에서 1990년부터 2001년 사이에 일반인들이 정신과 치료에 대해 지니고 있는 태도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이에 따르면 1990년도의 정신병리와 관련된 서비스 환경체제를

강화한 결과 일반인들이 정신과 혹은 심리치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서비스를 기꺼이 활용할 의사를 표명하였다(Angermery & Matschinger, 2005). 이는 환경적 변화가 서비스에 대한 태도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결과이다. 또한 시골과 도시 학생들의 상담 태도에 관한 비교 연구에서도 환경적인 여건이 상대적으로 더 나은 도시의 학생들이 시골학생들에 비해 상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 맥락적 변인들이 개인적 특성과 전문적 도움 요청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van der Riet & Knoetze, 2004). 이러한 연구들은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체제의 물리적인 여건이 서비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환경적 요인들이 도움 요청 태도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이제까지 연구의 주목을 받아온 것은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들이었다. Kushner와 Sher(1989)는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도록 하는데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접근 변인들(approach factors), 도움을 받도록 하는데 저해가 되는 요인들을 회피 변인들(avoidance factor)로 구분하여 전문적 도움 요청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변인들을 연구하였다. 이제까지의 연구에서 전문적 도움에 대한 접근 변인들로 밝혀진 것들로는 높은 수준의 심리적인 불편감(장영임, 1999; Ingham & Miller, 1986), 그리고 사회적 지지망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Sherbourne, 1988), 자아 은폐 수준이 낮은 경우(김주미, 유성경, 200; 장영임, 1999)이다. 또한 많은 연구들(Ang, Lim, Tan, & Yau, 2004; Goh, Ghazi-Moghadam, Kato, & Hansen,

2004; Xie, Goh, Wahl, Romano, & Zhang, 2004)에서 일관되게 발견하고 있는 것은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도움 요청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실제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회피요인의 하나로 비서구적 문화 및 인종 요인이 연구되었다. 서구인들에 비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는 집단으로 아시아인 혹은 미국계 아시아인들(유성경, 유정이, 2000; 유성경, 이동혁, 2001; 김주미, 유성경, 2002; Bogart, 1998; Leong, 1986; Sue, 1998; Zhang & Dixon, 2003)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자는 한국 대학생과 미국 대학생의 비교연구(Yoo, 1997), 한국의 중, 고등,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주미, 유성경, 2002; 유성경, 이동혁, 2001), 한국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유성경, 유정이, 2000)에서 한국인들의 전문적 도움 추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런데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관련하여 연구를 진행하면서 부딪히게 된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다. 첫째는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가 문화적 타당성을 철저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문제이다.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척도는 Fisher와 Turner(1970)가 개발한 The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Scale(ATSPPHS)이고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모두 이 도구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ATSPPHS를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사용하였을 때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보다 전체 척도에서 일관되게 낮은 내적 합치도가 산출되

었다. 또한 서구인을 대상으로 하였던 원척도는 4 요인(전문적 도움의 필요성 인정, 정신병리에 대한 오점 수용, 문제에 대한 개방성, 전문가에 대한 신뢰)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한국인들에게도 4요인 구조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용되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태도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로 부딪힌 문제는 전문적 도움이라고 할 때 전문적 도움이 어떠한 형태 및 종류의 도움인지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Fisher와 Turner가 처음 도구를 개발하였을 때는 정신과 의사가 제공하는 정신치료에 대한 문항으로 척도가 구성되었으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늘어나면서 정신치료 및 정신과의사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들을 상담 및 심리치료, 상담자와 심리치료사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내용을 수정하게 되었다. 본 연구자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상담, 심리치료를 동시에 사용하거나 각각을 따로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었다. 즉, 이제까지의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관한 연구들은 전문적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정신치료, 심리치료, 상담에 대한 태도가 혼재되어 측정되어 마치 세 가지 종류의 전문적 서비스가 동일한 서비스인 것처럼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설문 대상자들이 상담, 심리치료, 정신치료를 같은 종류의 서비스라고 지각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태도의 긍정 및 부정성의 정도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세 형태의 서비스에 대한 태도 결과를 동일한 서비스에 대한 태도 결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상담, 심리치료, 정신치료의 차이점과 유사성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는 우리나라의 학자들 간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에 따

르면, 각각 영역에서 다루는 문제의 성격,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활동장소 및 교육배경 등에 따라 이들 서비스 간에 구분이 이루어진다는 입장으로 논의가 이어져 왔다(박성희, 2001). 김계현(1995)은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면서 이들 영역간에는 '중첩이 심하여 선을 그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구분은 가능한 유사활동'이며, 이들 영역을 '임의로 혹은 억지로 구분하려는 시도는 무의미할 따름 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결론은 상담, 심리치료, 정신치료간의 차이를 이론적으로 구분하려는 시도는 임의적이고, 무의미하게 보일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들 영역간의 이론적 차이를 논하는 것과는 별개로 서비스 수혜자들이 실제로 각 영역을 어떻게 다르게 지각하고, 어떠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에 관한 경험적인 분석은 실제적인 시사점을 지닐 수 있다. 어떤 영역에 대해 사람들이 접근하기를 보다 더 어려워하는지를 밝혀낼 수 있다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서비스 갭'을 줄여주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위에서 기술한 두 가지의 연구문제를 가지고 진행이 되었다. 첫째, 한국인들의 전문적 도움 요청에 대한 태도 측정요인이 서구인들과 같은 태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Fisher와 Turner (1970)가 개발한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태도 질문지(The Attitude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Scale; ATSPPHS)의 구성타당도를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확인하여, 그 결과를 서구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상담, 심리치료, 정신치료에 대해 한국 대학생들이 지니는 태도는 남, 여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ATPPHS를 상담, 심리치료, 정신치료의 3가지 형태의 도움에 대한 태도를 묻는 문항으로 각각 번안하여 3가지 형태의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세 가지 형태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태도점수를 각각 산출하여 이들 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 방 법

###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는 572명의 대학생(남:159명, 여:413명)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서울, 경기, 충청권의 7개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참여자들의 평균연령은 22세( $SD: 2.26$ )이고, 연령 범위는 18세에서 34세이다. 이들의 전공은 인문계열 56명, 사회계열 123명, 자연계열 111명, 예술계열 24명, 사범계열 224명, 그리고 기타 전공 26명이다. 각 참여자들은 전문적 도움 요청에 대한 태도 질문지를 교실에서 작성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였다.

### 도구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태도 질문지(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Help)는 Fisher와 Turner (1970)가 개발한 것으로 총 29개의 문항, 4개의 하위요소로 구성되어있다. 첫째 요인은 전문적 도움에 대한 개인의 필요를 얼마나 인정하는가를 측정하고(8개 문항), 둘째 요인은 전문적 도움을 받는 것과 관련된 낙인을 수용하는 정도(5개 문항)를 측정한다. 셋째 요인은 자신의 문제에 대한 개방정도(7개 문항)를 측정하며, 넷째 요인은 전문가들이 도움을 주는 능

력에 대한 신뢰정도(9개 문항)를 측정한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1점 (매우 반대함)에서 4점 (매우 찬성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Fisher와 Turner가 초기에 개발했을 때는 정신과 의사, 정신병원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되어있던 것을 Atkinson과 Gim(1989)의 연구에서는 심리학자-상담자, 상담 센터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문항을 바꾸었다. 국내의 연구에서는 유성경, 이동혁(2000), 유성경, 유정이(2000)에서는 상담(심리치료) 그리고 상담실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고, 김주미, 유성경(2002) 연구에서는 심리치료 라는 표현을 생략하고 상담, 상담실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다.

Fisher와 Turner(1970)가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산출한 ATTSPPHS 하위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하위척도별로 필요인식 .67, 낙인수용 .70, 개방성 .62, 그리고 신뢰성 .74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상담용, 심리치료용, 정신치료용으로 번역한 경우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산출한 내적 합치도는 연구결과 부분에 제시하였다.

###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상담, 심리치료, 정신치료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는 것으로 상담용, 심리치료용, 정신치료용의 3가지 종류로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3가지 종류의 질문지는 총 문항의 내용과 수는 동일하나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만 차이를 두었다. 상담용은 심리적 문제, 상담자, 상담실의 용어를 사용하였고, 심리치료용은 심리적 문제, 심리치료사, 심리치료실, 그리고, 정신치료용은 정신적 문제, 정신과 의사,

정신병원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2번 문항의 경우 심리치료용은 “만약 좋은 친구가 심리적 문제에 대해 나의 조언을 구한다면 나는 심리치료를 만나라고 추천할 것이다”로 표현하였고, 상담용은 상담자, 정신치료용은 정신과의사로 표현을 달리하여 번안하였다. 상담, 심리치료, 정신치료용 질문지에서 다른 용어가 선택된 문항은 전체 29개 문항 가운데 총 16개 문항이었다. 문항이 달리 표현된 문항 가운데 20번 문항은 상담용과 심리치료용 모두 “심리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수치라는 짐을 동반한다.”로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고, 정신치료용의 경우는 “정신적인 질환을 앓았다는 것은 수치라는 짐을 동반한다.”로 번안되어, 상담용과 심리치료용은 15개 문항에서 차이가 있었고, 정신치료용과는 16개의 문항에서 차이가 있었다.

3종의 질문지를 각각 상담용 213부, 심리치료용 189부, 정신치료용 176부를 7개 대학에 배부하였다. 이때 각 학교에 3종의 질문지를 골고루 배포하여 특정학교에 특정 서비스에 대한 질문지가 몰리지 않도록 하였다. 설문 실시는 수업시간에 수업담당 교수가 직접 실시한 후 우편으로 회수하였다.

### 결 과

####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상담, 심리치료, 정신치료에 대한 태도비교에 앞서 이들을 측정하는 도움추구행동에 대한 태도 척도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도 Fisher와 Turner(1970)가 제안한 4요인 모델을 가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AMOS 4.00

(Arbuckle, 1999)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검증된 4요인 구조 모델은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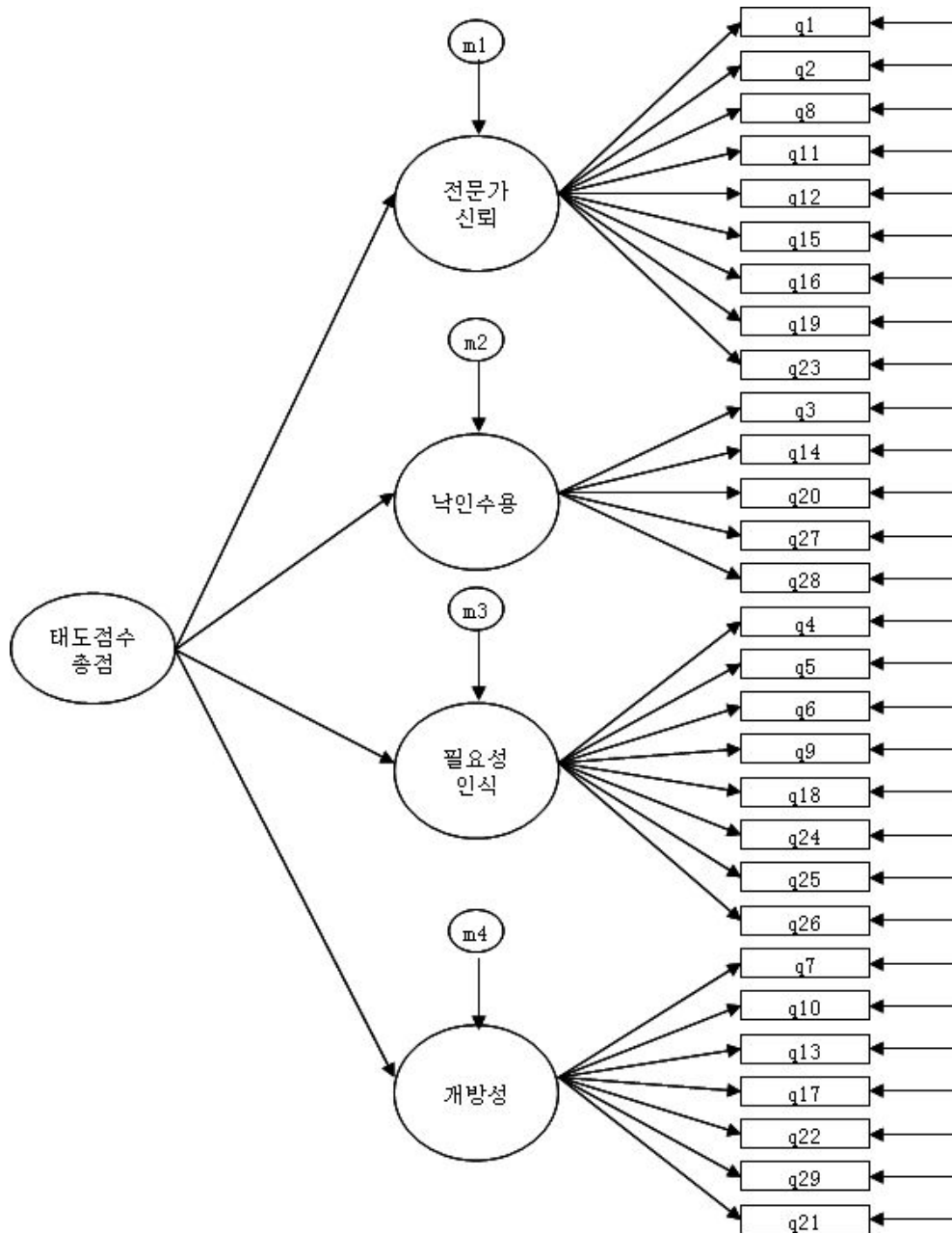


그림 1.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태도 질문지 4 요인 구조 모델

표 1. ATTSPPHS 의4 요인 구조에 대한 적합도 지수

	$\chi^2$	df	$\chi^2/df$	TLI	NFI	RMSEA	RMSEA (90% 신뢰구간)
상담 (N=213)	639.29	374	1.71	.98	.96	.06	(.05, .07)
심리치료 (N=189)	650.13	374	1.74	.98	.96	.06	(.06, .07)
정신치료 (N=176)	689.68	374	1.84	.97	.95	.07	(.06, .08)

주. ( ) 안의 수치는 신뢰구간을 나타냄. TLI =Tucker-Lewis Index; NFI = Normed fit index; RMSEA =Root-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4요인 구조가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안정된 모델인지를 보여주는 적합도 지수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적합도 지수로는  $\chi^2$ 와  $\chi^2/df$  (Newcomb, 1994, 2.00보다 작으면 적합), TLI (Tucker Lewis Index; Bentler & Bonett, 1980, .90보다 큰 경우 적합), RMSEA(Root-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Hu & Bentler, 1999, .06이면 적합, .08 보다 적으면 수용가능), NFI(Normed Fit Index; Bentler & Bonett, 1980, .90 이상이면 적합) 모두 5가지를 이용하였다. 표 1에 제시된 적합도 지수 결과를 살펴보면 전문적 도움 추구 질문지는 상담, 심리치료, 정신치료용 모두 한국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4요인구조가 적합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ATTSPPHS의 4요인 구조가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적합한 구조임이 밝혀졌으나, 각 요인에 해당하는 개별문항들의 요인 부하량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몇몇 문항들은 요인부하량이 .03 이하의 값을 보여 해당 요인을 측정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용, 심리치료용, 정신치료용 질문지에서 부적합한 문항으로 나타난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에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상담, 심리치

표 2. 요인부하량 .3 이하인 문항

하위요인	상담	심리치료	정신치료
필요성인정	24	24, 26	24, 26
낙인수용	해당문항 없음	해당문항 없음	해당문항 없음
개방성	10, 13, 21	13, 21	13, 21
신뢰성	16	16	11, 16

10. 직계 가족들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 의논해서는 안 되는 문제들도 있다.
11. 심각한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좋은 정신병원에서 아마 가장 안전하다고 느낄 것이다.
13. 일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개인적인 걱정이나 염려를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16.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 같다.
21. 내 인생 중에 누구와도 의논하고 싶지 않은 경험을 했다.
24. 전문적인 도움없이 자신의 갈등이나 두려움에 가까이 대처하고자 하는 사람의 태도에는 존중할 만한 무엇이 있다.
26. 인간은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한다; 심리치료(정신치료를 받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할 것이다.

료, 정신치료용에서 모두 부적합 문항으로 밝혀진 문항은 13, 16, 21, 24의 총 4문항이었다.

또한 상담의 경우 10번, 심리치료의 경우 26번, 정신치료의 경우 26번과 1번이 추가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최종적으로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태도 측정에 있어서 부적합하다고 밝혀진 문항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족의 중요성(10), 정신병원의 안전성(11), 문제 해결 방법으로서 일에 집중하기(13), 전문적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정서적 취약성(16), 자기만의 비밀 지님(21), 스스로 문제해결 하는 태도에 대한 긍정성(24, 26) 이었다. 이러한 문항들의 내용들은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서구 문화와 한국 문화 간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구체적으로 가족, 정신병원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의 차이, 문제 해결책으로서의 일에 집중하는 것, 독립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적 도움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데 문화적인 차이를 보이는 문항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항들이 한국인들의 상담, 심리치료, 정신치료에 대한 태도 측정에 있어서 왜 부적합한 문항으로 판정되었는지에 대한 논의는 보다 심리적 문제 및 문제 해결에 대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 심리치료, 정신치료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기 위해 요인 부하량이 .3 이하인 문항들을 제외하고 상담용 24문항, 심리치료용 24문항, 정신치료용 23문항을 문항만을 사용하여 문항간 내적 합치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전체 신뢰도는 상담 .83, 심리치료 .86, 그리고 정신치료 .83으로 산출되었다. 하위 요인 별로는 도움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상담 .73, 심리치료 .65, 정신치료 .61로 나

타났고, 낙인에 대한 수용에 있어서 상담 .60, 심리치료 .73, 정신치료 .79로 나타났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개방성에 있어서 상담 .48, 심리치료 .62, 정신치료 .57로 나타났고, 전문가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는 상담 .71, 심리치료 .75, 정신치료 .67로 나타났다.

#### 상담, 심리치료, 정신치료에 대한 남, 녀간 태도 비교

먼저 상담, 심리치료, 정신치료에 대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태도 점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본 분석에서는 표 2에서 제시되었던 원 척도 문항들 가운데 요인부하량이 .3이하인 문항들은 제외하였다.

전문적 도움의 종류(상담, 심리치료, 정신치료)에 따라, 그리고 성별(남, 여)에 따라 도움 추구에 대한 태도에 있어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ATPPHS총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이원 분산분석, 그리고 ATPPHS의 4개 하위 요인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변량분석을 하였다. 독립변인은 전문적 도움의 종류(상담, 심리치료, 정신치료)와 성별(남, 여)이었다.

이원 분산분석의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ATPPHS의 총점에서 남녀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여자가 남자보다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 가지 종류의 도움 형태에 따라서는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태도점수 총점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성별 및 도움 종류에 따라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하위척도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4개의 하위척도



표 3. 상담, 심리치료, 정신치료에 대한 남녀 태도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척도	도움형태	남자(N=153)		여자(N=398)	
		M	SD	M	SD
필요성인정	상담	17.08	3.60	18.63	3.03
	심리치료	16.68	3.30	18.34	2.87
	정신치료	16.04	3.57	18.07	2.50
낙인수용	상담	14.48	2.67	15.19	2.76
	심리치료	14.04	3.17	15.84	2.65
	정신치료	13.28	3.42	14.40	3.14
개방성	상담	11.84	2.14	12.02	2.13
	심리치료	11.80	2.46	12.82	2.04
	정신치료	11.78	2.31	11.88	2.45
신뢰성	상담	19.45	3.70	20.84	3.14
	심리치료	19.04	3.71	20.84	3.15
	정신치료	19.78	3.39	20.39	2.92
전체	상담	62.86	9.57	66.52	8.72
	심리치료	61.98	9.70	67.97	8.18
	정신치료	60.84	9.85	64.75	7.76

표 4. 상담, 심리치료, 정신치료 태도 총점에 대한 남녀별 일원 분산 분석결과

변산원	SS	df	MS	F
성별 (A)	2289.55	1	2289.55	30.51***
종류 (B)	356.12	2	178.06	2.37
A X B	142.52	2	71.26	.95
집단내 오차	40894.20	545	75.04	
전체	43915.61	550		

주.  $p < .001$ \*\*\*

에 대한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변량 분석 결과에 따르면 4개의 하위변인에 있어서도 남녀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자들이 모든 하위 변인에서 남자들에 비

해 유의하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각 하위 요인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결과(표 5 참고)에 따르면 4개의 하위 척도 모두에서 유의하게 여자들이 남자들 보다 긍정적인 태

표 5.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하위적도에 대한 남녀, 도움 종류에 따른 분산분석 결과

변산원	SS	df	MS	F
성별(A)				
필요성 인정	146.83	1	146.83	13.97***
낙인수용	163.21	1	163.21	19.21***
개방성	22.90	1	22.90	4.61*
신뢰성	330.18	1	330.18	36.12***
종류(B)				
필요성 인정	.32	2	.16	.02
낙인수용	103.18	2	51.60	6.07**
개방성	18.26	2	9.13	1.84
신뢰성	51.53	2	25.76	2.82
A X B				
필요성 인정	20.61	2	10.31	.98
낙인수용	23.08	2	11.54	1.34
개방성	20.66	2	2.08	2.08
신뢰성	4.15	2	10.33	.23
집단내 오차				
필요성 인정	5728.24	545	10.51	
낙인수용	4630.53	545	8.50	
개방성	2708.92	545	4.97	
신뢰성	4981.69	545	9.14	
전체				
필요성 인정	5903.55	550		
낙인수용	4957.30	550		
개방성	5356.16	550		
신뢰성	2806.79	550		

주.  $p < .001$ \*\*\*;  $p < .01$ \*\* ;  $p < .05$ \*

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필요성인식:  $F(1, 545)=36.12, p < .001$ , 낙인수용:  $F(1, 545)=19.21, p < .001$ , 개방성:  $F(1, 545)=4.61, p < .05$ , 신뢰성:  $F(1, 545)=13.97, p < .001$ ). 즉, 여자들이 남성들에 비해 도움의 필요성을 많이 인정하고, 도움 추구에 따른 낙인에 대한 수용도가 높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 개방수준이 높았으

며, 전문가에 대한 신뢰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적 도움의 종류에 따른 4개 하위변인에 대한 다변량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F(8, 1084)=3.39, p < .001, Wilks's \lambda=.95$ ). 어떤 하위 척도에서 상담, 심리치료, 정신치료에 대한 태도

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4개 하위척도에 대한 일원변량분석을 한 결과에 따르면 4개 하위 척도 가운데 낙인수용 척도에서만 상담, 심리치료, 정신치료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2, 545)=6.07, p<.01$ ). Sheffè 사후검증 결과에 따르면 상담과 심리치료에 대해서 보다 정신치료에 대한 낙인수용의 수준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는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한국 대학생들이 어떠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여기서 전문적인 도움은 상담, 심리치료, 정신치료의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각각의 도움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남녀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에 앞서 한국인들의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태도가 서구인의 경우와 같은 요인구조로 구성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는 심리적 문제에 대한 인식과 평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미국과 한국 간에 문화적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기존의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 방법론상의 문제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태도는 Fisher와 Turner (1970)가 개발한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태도 질문지(The Attitude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ATTPPHS)을 사용하였다.

ATTPPHS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 한국인의 경우도 서구인의 경우와 같이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태도는 상담, 심리치료,

정신치료 모두 4가지 하위요인 (도움 필요성에 대한 인정, 낙인수용, 문제에 대한 개방성, 전문가에 대한 신뢰) 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별 문항의 회귀계수를 통한 요인 부하량을 살펴 본 결과, 동, 서양 문화 간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몇몇 문항들이 삭제되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된 문항들의 내용을 크게 정리해 보면, 가족 프라이버시 중시(직계 가족들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 의논해서는 안 되는 문제들도 있다),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서 일에 몰두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평가(일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개인적인 걱정이나 염려를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독립적인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긍정적 평가(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 같다, 전문적인 도움없이 자신의 갈등이나 두려움에 기꺼이 대처하고자 하는 사람의 태도에는 존중할 만한 무엇이 있다, 인간은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한다), 정신병원이 지니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부정(심각한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좋은 정신병원에서 아마 가장 안전하다고 느낄 것이다)이다.

왜 위와 같은 항목들이 한국인들의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데 적절하지 않은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의 심리적인 문제가 직계가족 이외의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가족 집단주의가 강한 아시아 문화권에서 강하게 발견되어지는 특성 중의 하나이다. 즉 가족 성원이 심리적인 문제를 지닌 경우 이로 인해 가족 전체가 낙인찍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

내 비밀로 감추는 경향이 있다(Yeh, 2002; Yoo & Skovholt, 2002). 그런데 통계적으로 부하량이 낮은 문항들을 삭제한 후에도 산출한 문항간의 내적 합치도가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다소 낮게 산출되었다. 이는 4 요인 구조의 전체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수용할 만하지만 각각의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응 패턴이 미국인들에 비해 일관되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심리적 문제 혹은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동, 서양 간의 문화적 차이가 있다는 사실들은 선행연구들과 임상 실제에서 많이 지적되어 온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한국인들이 서양에서 개발된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태도 질문지의 문항에 대해 다소 일관성이 떨어진 반응을 한 것은 문항이 문화적 차이를 민감하게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측정 도구의 문화적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본 연구와 같이 기존에 서구 문화에서 개발된 도구의 타당화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한국인들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문항들을 확보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한국인들이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 도움을 요청하려고 할 때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보다 탐색적 수준의 연구를 진행하여 이들 요인과 서구인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의 요인들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상담, 심리치료, 정신치료를 대한 남녀 대학생의 태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정신치료를 받는 것에 대한 오점의 수용도가 상담 혹은 심리치료를 받는 것에 대한 오점 수용도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신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로 인해 낙인찍히게 되는 것이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로 인

해 낙인찍히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사람들이 정신 치료를 받는 것이 상담 및 심리치료를 받는 것보다 더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지닌 경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것이 타인들에게 알려지면 낙인찍힐 위험이 더 크다고 지각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정신과 의사를 찾는 내담자들을 치료할 때는 치료받는 것으로 인해 낙인찍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치료 초기에 충분히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낙인에 대한 수용도 이외에는 다른 하위 영역(문제해결의 필요성 인정, 문제에 대한 개방성, 전문가에 대한 신뢰)에서는 세 영역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정신치료, 심리치료 및 상담을 찾는 내담자들이 자신의 문제 해결 동기, 개방적 태도 및 각 전문가 집단에 대해 지니고 있는 서비스 수혜자들의 태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신치료와 심리치료 및 상담 영역에서 다루는 문제의 영역,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문제 심각도, 서비스 제공자들의 기본 철학 등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지나치게 임의적이어서 차이를 논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김계현(1995)의 이론적인 논의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보인다.

심리적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여자들이 남성들에 비해 세 영역 모두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도움 추구 행동과 관련된 최근의 다른 연구결과들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Ang, Lim, Tan, & Yau, 2004; Goh, Ghazi-Moghadam, Kato, & Hansen, 2004; Xie, Goh, Wahl, Romano, & Zhang, 2004). 이같이 남성들이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해 도

움을 받는 것에 대해 지닌 일반적인 부정적 특성을 고려할 때 남성들이 심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McCarthy & Holliday, 2004).

본 연구 상담태도에 대한 기존의 문화간 비교연구에서 간과하였던 연구도구의 문화적 타당도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문화간 비교 연구를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서구에서 개발된 연구도구는 기본적으로 서구적 문화 특성을 반영하는 문항으로 구성된 바, 한국인들의 문화 특수적인 문항들을 간과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 특히 '개방성' 척도의 경우 내적 합치도가 다른 하위척도들에 비해 매우 낮은 나타나 개방성 문항들이 한국 대학생들에게는 일관된 영역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보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한국인들의 고유한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연구 도구의 개발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의 편중성은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를 보여준다. 여학생 비율이 72%였고, 중부에 편중된 대학에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으며, 전공 영역도 사범계열의 비중이 39% 를 차지하는 등 연구대상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성들이 전문적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지니는 부정적인 태도는 남성들의 심리적 문제해결을 위한 별도의 전문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 남성들은 술 문화를 통해 개인 심리적인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남성들도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으며, 심리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충분히 용납

될 수 있다는 교육적 노력과 더불어 전문적 도움을 청한 남자 내담자들의 경우 그들이 지니고 있을 도움 요청 자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공감적으로 다루어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계현 (1995). 카운슬링의 실제. 서울: 학지사
- 김주미, 유성경 (2002).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문화적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91-1002.
- 박성희 (2001). 상담과 상담학. 서울: 학지사
- 유성경, 유정이 (2000).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과 상담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9-32.
- 유성경, 이동혁 (2000). 한국인의 상담에 대한 태도에 관한 분석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2), 55-68.
- 장영임 (1999). 문제의 심각도 및 사회적지지, 상담자에 대한 신뢰가 상담요청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ngermery, & Matschinger, (2005). Have there been any changes in the public's attitude towards psychiatric treatment? Results from representative population survey in Germany in the years 1990-2001.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11, p. 68.
- Arbuckle, J. (1999). *AMOS users'guide*. Chicago: Small-Waters.
- Bogart, L. M. (1998). The relationship of stereotypes about helpers to help-seeking judgements, preferences, and behaviors. *PSPB*, 24,

- 1264-1275.
- Bentler, P. M., & Bonett, D. G. (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88, 588-606.
- Cramer, K. M. (1999). Psychological antecedents to help-seeking behavior: A reanalysis using path modeling structur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 381-387.
- Fisher, E. H., & Turner, J. (1970). Orientation to seeking professional help: Development and research utility of an attitude scale.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35, 79-90.
- Ang, R., Lim, K. M., Tan, A. G., & Yau, T. Y. (2004, August). Impact of sex role type and gender on help-seeking behavior of trainee teachers in Singapore. In T. Y. Yau & A. G. Tan (Co-Chairs), *Asian perspectives on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Invited symposium conducted at the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Congress of Psychology, Beijing, China.
- Goh, M., Ghazi-Moghadam, S., Kato, K., & Hansen, M. R. (2004, August). A Meta-analysis of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In T. Y. Yau & A. G. Tan (Co-Chairs), *Asian perspectives on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Invited symposium conducted at the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Congress of Psychology, Beijing, China.
- Ingham, J. G., & Miller, P. M. (1986). Self-referral to primary care: Symptoms and social factors.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30, 49-56.
- Kushner, M. G., & Sher, K. J. (1989). Fear of psychological treatment and its relation to mental health service avoidance.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0, 251-257.
- McCarthy, J., & Holliday, E. L. (2004). Help-seeking and counseling within a traditional male gender role: An examination from a multicultural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2, 25-30.
- Roness, A., Mykletun, A., & Dahl, A. A. (2005).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11, 51.
- Sherbourne, C. D. (1988).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life stress in use of utilization.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21, 167-178.
- Sue, S. (1998). In search of cultural competence in psychotherapy and counseling. *American Psychologist*, 53, 440-448.
- Tan, A. G., Lim, K. M., Ang, R. P. H., & Yau, T. Y. (2004, August). The relation between perceived cultural behavior and help-seeking behavior of trainee teachers in Singapore. In T. Y. Yau & A. G. Tan (Co-Chairs), *Asian perspectives on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Invited symposium conducted at the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Congress of Psychology, Beijing, China.
- Vander Riet M., & Knoetze, J. (2004). Help seeking patterns in urban and rural youth in two South African Provinces.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5, 223.
- Wampold, B. E. (2001). *The Great Psychotherapy Debate*.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Xie, B., Goh, M., Wahl, K. H., Romano, J. R., &

- Zhong, G., (2004, August). Chinese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In T. Y. Yau & A. G. Tan (Co-Chairs), *Asian perspectives on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Invited symposium conducted at the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Congress of Psychology, Beijing, China.
- Yeh, C. (2002). Taiwanese students'gender, age, interdependent and independent self-construal, and collective self-esteem as predictors of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seeking attitude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8, 19-29.
- Yoo, S. K., & Skovholt, M. T. (2001). Cross-Cultural Examination of Depression Expression and Help-Seeking Behavior: A Comparative Study of Americans and Koreans.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4, 10-19.
- Zhang, N., & Dixon, D. N. (2003). Acculturation and attitudes of Asian international students toward seeking psychological help.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31, 205-222.

원 고 접 수 일 : 2005. 5. 31

수정원고접수일 : 2005. 7. 18

게 재 결 정 일 : 2005. 8. 5

K C I

## Korean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Counseling, Psychotherapy, and Psychiatric Help

Sung-Kyung Yoo

Ewha Woman's University

The primary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validate the factor structure of the ATSPPH scale with the Korean sample. Specifically, I examined whether the four - factor structure model of the original ATSPPHS can be obtained with the Korean sample. Also, I investigated whether Koreans have different attitudes toward different types of professional psychological services, such as counseling, psychotherapy, and psychiatric help. Thus, I developed the three Korean-translated versions of the ATSPPHS measuring the attitude toward the three different types of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such as counseling, psychotherapy, and psychiatric help. Korea. Participants were 572 college students in Korea, and they were ranged in age from 18 to 34 ( $M = 21.45$ ). The Attitude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Scale (ATSPPHS; Fisher and Turner, 1970) was used to measure the attitude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The result of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nfirmed the 4 factor structure of the ATSPPHS with the Korean sample. The result of the MANOVA indicated that women showed significantly more positive attitudes than men. Also, people were shown more concerns about the stigma attached to psychiatric help than counseling or psychotherapy.

*Key Words* : help-seeking, counseling, psycho therapy, psychiatry